

수도권 시민들의 젓줄, 팔당호

글 __ 김동정 르포작가

팔당호를 살리고,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대책은 각종 개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이른바 전원주택의 난립을 막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팔당호가 자연정화 능력을 갖추는 그 때가 어서 오기를 지금 수도권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팔당호를 대대손손 물려주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다.



천진암 계곡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하순의 어느 날, 모처럼 바람도 쉴 겸 팔당호를 찾았다. 호수를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그 실체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샅터와 붙어 있는 풍경은 웬지 관심이 덜한 까닭일 것이다. 장맛비로 불어난 호수는 탁하지만 도도한 흐름은 여전했고, 호숫가에 사는 다양한 생명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 왕성한 모습이었다. 물안개가 띄엄띄엄 덮은 팔당호는 더욱 신비한 모습이었었는데, 강변을 따라 둘러보는 주변 정취는 고즈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곳곳에 들어선 카페와 음식점, 이른바 러브호텔이 눈에 거슬러긴 했지만 광활하게 이어진 아름다운 호수는 그런 내 기분을 상쾌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상수원 오염과 보호, 수도권 시민의 두 얼굴

남한강과 북한강을 아우르는 팔당호(八堂湖)는 20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일 외에도 일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휴식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팔당호는 썩 달갑지 않은 존재이기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문제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언론이나 환경 단체에서 갖가지 문제점을 들고 나온 것도 여러 번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팔당호를 살리려는 노력이 각계 각층에서 번지고는 있지만, 팔당호의 물을 마시고 사는 시민들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팔당호가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먼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물의 오염을 들 수 있다.

물의 오염은 인간이 자연에 주는 상처로, 물에 의지해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오염된 물은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염원으로 지적받고 있는 공장의 오폐수,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의 분뇨, 논과 밭에 뿌리는 농약과 비료, 유원지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 가정에서 내보내는 생활 하수 등은 그 정도가 지나쳐 팔당호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수질 오염의 심각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보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되살릴 수 있는 방

안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의 첫째가 개개인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팔당호 보호는 우리 몫이다

팔당호는 1973년 팔당댐 건설로 생겨났으며 1974년부터 수도권 시민들에게 수도물을 공급해 왔다. 특히 팔당댐 상류는 수질(水質) 보호를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99년 8월부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특별법' 이지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팔당 지역 내 7개 시군에 들어선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시설은 현재 2만여 곳으로 10여 년 전에 비해 3.5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산림 형질을 변경해 개발 허가를 내준 건수도 해마다 늘어 팔당호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팔당댐 상 하류인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시 일대의 23개 하천 수질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부영양화 원인 물질인 인과 질소 함량이 기준치보다 2배~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수천억 원에 이르는 물 이용 부담금을 들인 팔당호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원망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팔당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 환경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팔당호를 살리고,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대책은 각종 개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이른바 전원주택의 난립을 막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팔당호가 자연정화 능력을 갖추는 그 때가 어서 오기를 지금 수도권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팔당호를 대대손손 물려주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다.

수려한 경치 속에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고

한편, 팔당호를 낀 광주시 퇴촌면 일대에는 우리 얼이 스민 역사 유적이 널려 있다. 팔당호에서 지척인 천진암과 앵자봉, 남종면 분원리의 백자도요지는 조상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경치가 그만인 곳이다.

팔당호를 따라 앵자산(해발 676미터)으로 간다. 산과 마을이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골짜기 길로 4km쯤 올라가면 한국 카톨릭 교회 발상지인 천진암이 나온다. 조선 정조 2년(1779년)에 신학을 연구하던 서학파 출신 권철신, 이벽, 정약전, 정약용, 이승훈 등 젊은 학자들이 모여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고 토론하던 곳이다. 86년부터 천진암 대성당 1백 년 계획을 세워 12만 평의 터에 대성당을 비롯해 경학당, 박물관, 기념탑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천진암을



장맛비로 불어난 팔당호

두르고 있는 앵자봉은 피꼬리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피꼬리산으로 불리다가, 산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뜻이 비슷한 앵자봉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가시봉'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유는 앵자봉 동북쪽의 양자산(해발 710미터)이 '신랑산'으로 불려 두 산을 부부로 보았기 때문이다. 앵자봉을 두르고 있는 천진암 계곡물은 수심이 낮고 짙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여름철 물놀이하기에 딱 좋고, 포근한 산세의 앵자봉(해발 667미터)을 오르는 것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다. 관산을 거쳐 소리봉-박석고개-앵자봉 정상까지는 2시간쯤 걸린다. 천진암 계곡에서 팔당호 쪽으로 나와 광동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백자도요지로 유명한 분원리에 닿는다. 분원리는 조선왕조 궁중에 들어가는 그릇을 굽던 '사옹원'이 있던 곳으로, 백자공원에 들어선 '백자자료관'에서 그 당시 도자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백자자료관에는 이 일대 분원리, 금사리 등에서 출토된 여러 종류의 백자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해 놓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하며 매주 월요일에는 쉰다. 분원리에서 시작한 강변길은 귀여리-검천리-수청리를 지나 양평대교, 여주 이포까지 이어진다. 주름을 만들며 흘러가는 강물과 실바람에 흔들리는 갖가지 수초는 길손의 마음을 환상으로 이끈다. 안개라도 낀 날이면 신비와 경이로움이 동시에 느껴진다. 이 길은 왕복 2차선으로 굴곡이 심해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찾아가는 길

중부고속도로 광주 나들목에서 팔당 하남 방면 국도 45번을 탄다. 변천 삼거리에서 우회전, 지방도 88번을 타면 팔당호가 펼쳐진다. 여기서 퇴촌면 천진암 주차장까지 12km 남짓. 팔당대교-팔당댐-337번 지방도를 타면 분원리 백자도요지. 서울 강변역에서 13-2번 버스가 퇴촌면까지 운행한다. 퇴촌면에서 분원리까지는 마을버스가 수시로 다닌다.